

ENERGY

SAVER

에너지 절약의 리더

에너지세이버

건물 유리창에 코팅을 하면 냉난방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ENERGY SAVER GLASS

1. 태양 복사열 에너지(적외선) 차단
2. 냉난방기 가동을 위한 전력 에너지 절감
3. 유해 자외선 최대 99% 차단
4. 친환경 공간 연출
5. 차열코팅 수명 우수 (장기간 외관 및 차열성능 유지)



우리사무실에...

- 냉난방 부하 감소로 비용절감
- 쾌적한 실내공간 연출로 업무환경 개선



우리학교에...

- 참가 학생들의 아토피 및 피부트러블 예방
- 쾌적한 실내공간 연출로 면학 분위기 증진



우리집에...

- 냉난방비 절약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
- 유해 자외선 차단 (피부, 가구, 의류 탈색방지)



우리병원에...

- 뜨거운 햇살로 부터 환자 보호
- 병원 에너지 절감 목표 관리의 해법

Special Theme

Refreshment
for Development

面向成功的充電站



NOROO

Special Theme		Refreshment for Development
06	VIEW	비즈니스 3.0시대, 비워내어 다시 부흥하라 商务领域的3.0时代，清空大脑再出发
08	INTERVIEW	경험과 열정이 만나, 다시 새로워지다 经验和热情相遇，焕然一新
12	BLANK STORY	언제나 새로운 이력서를 만들라! 随时更新你的简历吧!
Smile with NOROO		
14	HAPPY PARTNER	베트남에서 동남아시아까지, NNV가 물들인다! NNV的色彩，从越南渲染到东南亚!
18	CHEER US	(주)노루페인트 건축도료사업부 순&수 프로젝트팀 NOROO涂料股份有限公司建筑涂料事业部纯&秀项目组
22	HAPPY LINK	핑퐁 소리에 우정이 풍풍 / NOROO 패밀리 탁구동호회 “乒砰”声中碰撞出友情 / NOROO家族乒乓球俱乐部
24	FAMILY CLASS	도자기에 행복을 그리다 / (주)노루케미칼 서청원 과장 가족 在瓷器上描绘幸福 纳路化工有限公司课长徐清源 一家



수박

여름의 대표 과일은 무엇보다 수박이지요.
찌억 수박 갈라지는 소리는
더위의 정수를 단숨에 쪼개주는 듯합니다.
배꼽이 작고, 표면의 줄무늬가 선명할수록 달고,
꼭지가 마르지 않아야 싱싱하다는 것!
시원한 수박으로 건강한 여름 되세요.

Summer



장마와 우기

가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의 시중예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의 시작 전이나 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빈번한 강수 때문에
'우기'라고 표현할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이젠 장마 기간이 아니라 여름철 내내
가벼운 우산을 상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 냄새

햇빛과 바람이 바삭거리는 여름 향기는
자연 속에서나 가능합니다.
에어컨 실외기의 후끈한 바람이 아스팔트 녹는 냄새를
뿜어내는 도시의 사정은 다르지요.
쾌적한 여름을 나기 위해 탈취제와 상쾌한 향의 향수를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요?

Keyword



Vacance

햇빛이 따가워지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마음은 바캉스를 준비합니다.
이 말은 '텅 비우다'의 뜻을 지닌 'vacatio'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원래 뜻만큼이나 텅 비워진 고속도로, 피서지를 기대해 봅니다.
그보다 이 욕심을 먼저 비워야겠군요.

Sense for NOROO

28	DECO & DIY	일상에서 생명을 발굴하다 / 최정현 작가 生活中发掘生命 / 作家崔鼎铉
32	HEALTH CARE	선글라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키는 방패 太阳镜，免受紫外线侵袭的眼睛卫士
34	ECO FRIENDLY	자연재해, 인간을 돌이켜보게 하다 自然灾害，让人们自我反省
36	COLOR & CULTURE	음악과 색, 서로를 꿈꾸다 音乐与色彩的梦想

Clipping from NOROO

38	FOCUS ON NOROO	에너지세이버, 더위로부터 건물을 지킨다! ENERGY SAVER，通过隔热保护建筑!
40	NEWS BRIEFING	
46	IT Guide	스마트폰으로 돈 관리해 주는 앱 智能手机的理财应用程序
47	Behind Cut	숨은 사진으로 보는 편집후기 编辑花絮

NOROO

NOROO 그룹 사보 - 2011년 여름 2호

발행일 : 2011년 7월 15일 / 발행처 : NOROO 그룹
발행인 : 양정모 / 기획 : ㈜노루홀딩스 (02-2191-7700)
편집 및 디자인 : ㈜유니크앤디자인 (02-1544-9631), ㈜노루로지넷
인쇄 : ㈜대현미디어 / 사진 : URL스튜디오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노루홀딩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Capital Tower 10층 인사교육팀 문지혜 대리 T:02-2191-7720 / ㈜노루페인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전략경영기획팀 지남철 과장 T:031-467-6128 / ㈜아이피케이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422-8 국민연금 부산화관 17층 전략마케팅팀 정유진 주임 T:051-580-6183 / ㈜노루오토코팅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760-2 전략기획팀 백현정 주임 T:031-8069-9517 / ㈜노루케미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2-5 경영지원팀 장미선 대리 T:031-599-7253 / ㈜노루비케미칼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527-6 경영지원팀 이수용 대리 T:041-620-6207 / ㈜노루코일코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지원팀 박서진 대리 T:031-467-6486 / ㈜노루로지넷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총괄지원팀 전희경 대리 T:031-467-6363 / ㈜노루알앤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관리팀 박은주 사원 T:031-467-6518 / 칼라메이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5-9 업무총괄팀 박미숙 사원 T:031-467-6379

Special Theme

Refreshment for Development

- 06

View

비즈니스 3.0 시대, 비워내어 다시 부흥하라
- 08

Interview

경험과 열정이 만나 다시 새로워지다
- 12

Blank Story

Refresh your resume! 언제나 새로운 이력서를 만들라!

성공을 향한 리프레쉬먼트 코너

마라톤 코스에는 곳곳에 리프레쉬먼트(refreshment) 코너가 설치되어 있다. 출발 점에서 11km 앞에, 그리고 그 후 5km마다 마라토너들을 위해 음료를 비치해 두는 것이다. 이는 음료 보충과 마일스톤의 역할로 마라토너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 준다. 기업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멀리 가기 위해선 리프레쉬먼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독점 가치를 향해 초경쟁을 벌이는 비즈니스 3.0 시대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생각의 리프레쉬먼트, 전환의 기회를 마련하자.

面向成功的充电站

马拉松比赛全程设有多个休息处。从距离起点11公里处开始，每隔5公里设有一个饮料站，为选手补充体能，同时也起到里程记录的作用，鼓舞选手振作精神。企业和个人也是如此，若要走得更远，必须在中途进行充电(refreshment)。面向垄断价值，展开超速度竞争，为实现商务领域3.0时代的成功和发展，我们必须进行头脑充电，共同创造转变的机会。

비즈니스 3.0 시대, 비워내어. 다시. 부흥하라.

탁월한 글솜씨로 80여 권의 산문집과 시집을 집필한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 그가 상추를 수시로 가꾸는 걸 보고 미국의 한 석학은 집필에 진념할 것을 권했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상추를 가꾸지 않으면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틱낫한 스님에게 상추 가꾸기는 창작의 성공을 향한 비움과 새로워짐의 리프레쉬먼트였던 것이다.

商务领域的3.0时代 清空大脑再出发

以文笔独特而闻名的越南一行禅师，一生著有80余册散文集和诗集。一位美国的学者看他时常栽种生菜，故劝他专心写作。一行禅师则回答：“如果不种生菜就没办法写诗。”对于一行禅师而言，种生菜就是为了创作而清空大脑，重新充电的过程。

자신이 바라던 최종 목적을 이루어야만 살아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 계속 가속 페달만 밟다 보면, 그 과정에서의 모든 것을 담보로 해 둔 채, 도착하기 전에 지쳐버리기도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사로잡혀 무조건 앞으로 내달리는 것은 무모하다. 그 동안 간과되어 왔으나 지금의 비즈니스 3.0 시대에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리프레쉬먼트다.

초코파이, 카스타드 등 10여 개 장수브랜드로 유명한 오리온은 3년여 전부터 서울대 가정의학과 유태우 박사 팀과 함께 몸에 해로운 성분을 빼고 부족한 영양소를 더한 ‘건강한 과자’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어 ‘닥터 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과자에서도 먹는 즐거움보다 건강과 영양의 균형을 더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생각하게 될 소비자의 취향을 미리 읽은 것이다. 소재, 제품 가공 방법, 맛, 포장 등 전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오리온은 차세대 프리미엄 웰빙 제과 분야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프리미엄 이미지가 기업 전체로 확산되어 시너지를 냈다.

이처럼 기업 대내외 상황에 맞는 브랜드 리뉴얼과 리포지셔닝은 성장과 영속성을 위한 리프레쉬먼트로 작용한다. 연애 기간을 오래도록 지속하기 위해 파트너에게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기업도 소비자의 사랑을 유도하고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리뉴얼과 리포지셔닝 전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롭게 단장해야 하는 것이다.

성장을 향한 또 다른 리프레쉬먼트로는 ‘창조적 전환(Creative Transformation)’이 있다. 애플의 경우, 아이팟에 대한 초기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미지근했다. 그러나 아이튠즈라는 온라인 유료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자 아이팟 판매가 급증. 애플은 콘텐츠 유통으로의 사업 확장을 이루었고 결국 음악 시장의 판로도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성공 방식은 아이폰으로도 이어져, 아이폰은 앱스토어와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콘텐츠 생태계 속의 강자로 서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애플을 단순히 멋진 컴퓨터 제조사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공은 다른 회사와의 경쟁이 아니라 위대한 제품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의 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기(Think Different!)에 힘쓴 결과다. 리프레쉬먼트는 다르게 생각할 기회를 주어 기존의 사업 분야나 사업 방식, 조직 문화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발상하고 개념을 확장하도록 이끈다. 안정적으로 방향을 바꿀 때 반드시 필요한 브레이크 페달처럼, 적절한 시기의 리프레쉬먼트는 기업의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 제공,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시장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돕는 것이다.

평론가 겸 소설가이자 초대 문화부 장관인 이영선 선생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과연 오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잠시 기존의 생각을 멈추고 완전히 비운 후 다르게 접근할 때 창조가 일어나고, 이러한 창조를 통해 새로운 오늘이 있다”고 하였다. 핵심 가치의 유지와 발상의 전환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단 하나의 ‘독점 가치’가 탄생하며 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다. 끊임없이 비우고 새로워지며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어갈 NOROO인들의 도전을 기대해 본다.

世界上只为了达到自己最终目的而活着的人比比皆是。但是如果朝着目的地一味地踩油门，沿途的一切都将作为达成目标的代价而被忽略，到达终点之前就已经厌倦了。企业也是如此，套用过去成功的方式，不顾一切的前进是非常鲁莽的行为。至今被忽视的和当前商务3.0时代中必须重视的就是再充电的过程。

众所周知的“好丽友”旗下拥有巧克力派、泡芙蛋糕等10余种经久不衰的品牌。三年多以前，好丽友公司开始与首尔大学家庭医学系的柳泰宇博士开展“柳博士项目”，共同致力于“健康饼干”的研究，旨在去除饼干中对身体有害的成分，同时添加身体内缺乏的营养成分。因为他们清楚地认识到与享受吃饼干的乐趣相比，消费者更重要的选择标准是注重健康和营养均衡。通过对原料、加工方法、口味、包装等整个品牌的革新，“好丽友”占据了新一代高端健康食品领域的首位，并且这一高端形象扩散到整个企业产生了综合效应。

如此针对企业内外状况进行的品牌革新和再定位，就是企业持续增长、再充电的过程。正如恋爱的时间越久，越要给对方一种“新鲜感”一样，企业为了获得消费者的青睐，实现可持续发展，也需要不断的革新和重新定位，不断地追求创新，树立全新的形象。

面向发展的另一个再充电过程就是“创造性的转换(Creative Transformation)”。例如初期市场对苹果公司的iPod反应并不如预期的强烈。但是自从提供收费的音乐服务iTunes出现后，ipod的销量大增，苹果公司借助资讯流通扩张了业务范围，拓展到了唱片市场。这样的成功模式继续延

伸到了iPhone上，随着时间的推移，iPhone和App Store一起成为资讯界的强者。现在再也没有人认为苹果只是单纯的时髦笔记本的生产商了。

这样的成功并不是通过与其它企业展开竞争而实现的，而是将重点放在开发伟大的产品上，不拘泥于现有的框架，而是通过转变思考方式(Think Different!)得到的结果。再充电赋予我们转变思考方式的机会，也让我们从现在的事业领域、经营方式和组织文化的框架中摆脱出来，带领我们进行发散性的思考，扩大概念。就像平稳的转弯必须踩刹车一样，在适当的时期进行再充电不但有利于企业提供具有创意产品和服务，更有利于开拓新的市场，重组市场结构。

曾担任第一届文化部部长的著名评论家兼小说家李御宁先生曾说过：“和昨天一样的今天，真的可以称为今天吗？让我们暂时停止现有的思考，待大脑完全清空后，再以不同的方式思考就会产生创意，这样才会有崭新的一天。”将保持核心价值和转变想法有机的结合起来，就会诞生一个唯一的“垄断价值”从而领导市场。期待NOROO人能够不断地清空，再不断地更新，创造一个与昨天完全不同的今天。

refreshment



경험과 열정이 만나, 다시 새로워지다

(주)노루비케미칼(NOROO BEE Chemical Co., Ltd.)은 2006년에 생산공장과 본사를 천안으로 옮긴 뒤 중국, 인도, 체코, 및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울산 분공장을 준공하는 등 해외 진출과 매출 성장을 통해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조영호 (주)노루비케미칼 사장이 말하는 재탄생의 지속법은 무엇인가, 신입사원과 함께 들어보았다.

经验和热情相遇，焕然一新

2006年，纳路碧化学有限公司将生产工厂和总公司迁到天安后，不断在中国、印度、捷克和美国设立子公司，并建成蔚山分工厂，通过进军海外市场和销售的增长，每年的面貌都焕然一新。下面让我们了解一下纳路碧化学有限公司的代表理事赵英镐所说的能够持续变新的方法是什么吧！

30年经验的前辈 VS 3个月的新手

“很高兴能有机会跟新职员对话。新职员是新创意的宝库，作为公司前辈，今天我想和大家说一下职场上始终保持崭新姿态和心态的秘诀。“借本次“Refreshment for Development”主题的采访，我们与技术1组职员金知见、技术2组职员洪乘杓、海外销售组职员孙泽等2011年度新职员广泛交流了意见。对才进公司3个月，刚刚浅尝到业务的责任感，并开始对占了人生大部分的职场生活有点不知所措的他们而言，在NOROO集团奉献了30年的赵英镐代表理事的指点是非常宝贵的。

“近几年来，我们公司建立了新工厂并打入多个海外市场，发生了很大的变化。所以我们需要以崭新的心态工作的人。不仅是新职员，公司的老员工们也要有这种心态。时常创新，才能摆脱总是唱老调的惯例。”赵英镐代表理事对新职员寄予厚望。“其实与老员工相比，新职员掌握更多新的技术和理论，他们与经验丰富的老员工会碰撞出惊人的火花。为此，我们应该营造一个不分高下，畅所欲言的环境，而这正是我的责任所在。”

30년 경력, 3개월 신입을 만나다

“신입사원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신입사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보고이신데, 저는 오늘 회사 선배로서 항상 새로운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Refreshment for Development’에 대한 인터뷰를 준비하며 기술1팀의 김지전, 기술2팀의 홍승표, 해외영업팀의 손택 사원 등 2011년도 신입사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자리를 마련하였다. 입사 후 3개월 정도 지나, 맡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할 긴 직장 생활에 대한 고민도 시작될 법한 그들에게, 대한페인트잉크를 거쳐 30년을 NOROO에 몸담아온 노장, 조영호 사장이 들려줄 이야기는 귀한 조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가 지난 몇 년간 공장도 짓고 해외 진출도 많이 하는 등 새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기분으로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참신해야 구태의연한 관행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조영호 사장은 그러나 신입사원들에 대한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사실 오래 있던 사람보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론과 기술 면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있던 사람들의 경험에 이 기술을 접목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하지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내 책임이고요.”





refreshment

실제로 (주)노루비케미칼의 스크래치 프리 내장재, 헤드 램프용 UV 도료 접목 등은 이러한 토론과 대화 분위기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계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닛산, 혼다, GM, 포드 등에서도 (주)노루비케미칼의 제품을 쓰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기초적인 원리를 모르고서는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돌아간다면 기초 실험과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조영호 사장은 NOROO 재직 기간 동안 석사와 박사 학위를 땀을 정도로 공부 욕심이 많다. 그는 이 공부 욕심을 ‘호기심’ 탓으로 돌린다.

“호기심으로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없고 공부 끝의 환희와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에 ‘가방끈이 필요 없네.’ 하지 마시고 의문을 가져 보십시오. 어떤 수지가 이런 결과를 낳지? 합성수지 속은 어떻게 되어 있나? 등등. 이러한 의문이 없는 직장 생활은 결국 요새 말하는 ‘사오정’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경쟁체제하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리 글로벌 톱 메이커의 제품과 서비스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파고들 만한 약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회사의 누군가와 나와의 1:1 대결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지면 결국은 우리 회사가 지는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신입사원 때부터 (주)노루비케미칼 사훈에 있는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국제 사회인의 소양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조영호 사장은 그러한 필요 요건으로 외국어를 습득하고 타 문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품위와 품격을 갖추어야 하며, 각 분야의 세계적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입사원들에게 강조했다.

实际上，纳路碧化学有限公司的无抓痕内饰材料、前照灯用UV涂料结合等就是在这种讨论和对话的氛围中诞生的。结果不仅是韩系汽车，日产、本田、通用、福特等厂商也开始使用纳路碧化学有限公司的产品。

“但是任何技术和富有创意的点子，如果没有把握其基本原理都无法发展到更高的水平。如果让我回到新职员的时候，我想多学习一些基础实验和知识，这样才能取得更大的成就。” 赵英镐代表理事对学习的热情极大，在纳路工作的30年中先后取得了硕士和博士学位。他把这种对学习的热情归咎于“好奇心”。

“基于好奇心就不会有压力，还会感到学成后的喜悦和自我满足。对每天重复的事不要以为‘很简单’，应时常抱有疑问的心态去看待。‘调色时为什么会这样？用的什么颜料？是哪种树脂带来的效果呢？合成树脂里面是什么样子？’等等。没有这种疑问的职场生活会让我们沦为‘四五停’（意为四十五岁早早退休的人）。我们已经加入到全球竞争体系当中，即使全球领先企业的产品和服务再好也一定会存在缺陷的。我和竞争企业的某个人进行1:1对决。如果输给他，就等于我们公司输给竞争企业。要赢得竞争，应从新职员时期以‘共存共赢’的精神培养国际社会人的素质。”作为必备条件，赵英镐代表理事嘱咐新职员要学习外语，具备与外国人交流的品位和品格，把握各领域的国际趋势。



비우고 채우며, 느려도 멈추지 않길

반복되는 업무와 사회 생활의 스트레스는 호기심이나 의욕을 느낄 여유를 빼앗곤 한다. 조영호 사장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었을까? “한 분야의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더 이상의 학력도 필요치 않는 것 같고, 입사 후 3~4년쯤 후엔 직장 생활의 권태기가 오면서 나 자신에 대한 의문을 다른 직장을 찾는 길로 해결하려 들죠. 80%의 사원이 이럴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일을 해야만 새 생활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가진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무념무상의 상태를 가져 보십시오. 낮은 산을 혼자 걷는다든지, 재래시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어울려 본다든지, 주말농장에서 채소를 가꾸어 본다든지…… 그리고 악기를 하나 배워 보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실력이 나아진 걸 확인하며 즐긴다면 일상 생활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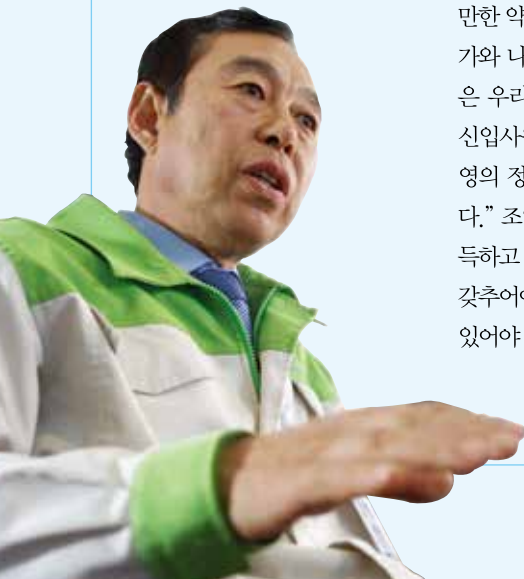
그는 다 버려야 채울 수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용기를 얻게 된다고 전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경쟁 상대를 정하고 맡은 일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의문을 품으면 매일매일이 새로워집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단시간에 돈과 명예를 얻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지, 쫓아갈 대상이 아닙니다. 비우고, 채우며 느리지만 멈추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时空时满，不怕慢只怕停

重复的工作和社会生活带来的压力使我们无暇产生好奇心。那么赵英镐代表理事是如何消除压力的呢？“在一个领域不断重复着相同的工作，感觉好像不再需要更高的学历了。工作3~4年后迎来工作的倦怠期，80%的人会试图通过寻找其他工作来解决这种压力。但新的工作并非能赢来新生活。首先要搁置现在的烦恼，保持空白的状态。一个人去爬爬山、到传统集市转转，接触更多不一样的人、在周末农庄栽培蔬菜……或者还可以学学乐器。如果感觉到自己的实力一天比一天好，你就会迎来更为崭新的生活。”

他说懂得放弃，才能填满，这样才能发现新的自我，获得勇气。“明确目标和竞争对手，时刻不忘让自己的业务有进一步发展，这样每天才会有新鲜感。现在的年轻人好像更热衷于追求在很短时间里获得金钱和名誉。但只要我们努力让自己成为专业领域中的佼佼者，金钱和名誉便不再是我们追求的对象，而会自然地跟随而来。希望大家时常空出再填满心灵，只要不停，一步步地走下去，再慢也没关系。”

호기심으로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없고
공부 끝의 환희와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에
“가방끈이 필요 없네.”
하지 마시고
의문을 가져 보십시오



이력서를 다시 쓸 일이 없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상황일 테지만, 반대로 이력서에 쓸거리가 없다는 건 엄청난 재앙이다. 쓸 일은 없어야 할지언정, 쓸거리는 항상 있어야 한다. 인생은 낱씨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투자하는 것이며, 당신의 일상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력서는 매해 새로워져야 한다.

언제나 새로운 이력서를 만들라!

입사할 때 제출했던 이력서가 있다면 당장 꺼내어 보자. 처음 이력서를 썼을 때의 두근대던 기억과 긴장감이 느껴지는가? 그와 비교할 때 현재 당신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이것을 상기하는 것만 해도 일상의 나른함에 서늘한 환기 작용을 할 것이다.

이어, 처음 이력서와 지금의 당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자. 당신에게는 만족, 혹은 충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좋다. 다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옛 이력서를 구겨버리는 충동만은 억제하자. 남은 칸에 앞으로의 계획을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CEO 12인의 아침식사를 활용한 인맥관리』에서 저자 진희정 씨는 1년에 한 번씩은 자신의 이력서를 다시 써보라고 충고한다. 자신이 어떤 회사의 어느 부서에서 일했는지 가장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력서인데, 1년에 한 번쯤 이력서를 써 보면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직할 마음이 없다고 해도 6개월에 한번씩은 이력서를 수정해 놓아야 한다고 권하는 이도 있다. 6개월에 한 번씩 자신의 프로젝트를 정리해 보고,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간단히 써 놓으면 훌륭한 기록물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이력서는 자신의 경력과 인생을 점검하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자극제다.

기존의 이력서에 덧붙여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5년, 10년 등 기간에 맞는 목표를 세워 '미래 이력서'를 만들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 일상을 점검해 희망하는 인생을 완성하자. 당신은 반드시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이력서

	성명		작성일자		
	주민등록번호		현재부서		
	전화번호		현재직급		
	핸드폰		이메일		
현주소	(우: -)				
현재 경력 사항					
기간	회사명	부서명	직위	연봉	특기 프로젝트
~					
~					
~					
~					
미래 경력 사항					
시기	부서명		직위	목표 연봉	특기 프로젝트
현재 자격 / 어학 사항			미래 자격 / 어학 사항		
자격 / 외국어 명	취득일자	비고	자격 / 외국어 명	취득일자	비고
기타 목표					
시기	목표명		방법		

젊은 나라, 빠른 변화 베트남

호치민 시내에서 사이공 강을 건너 한 시간 정도 달려가면 나오는 동나이 지역에 위치한 NNV 공장. 경제특구인 이 곳은 광활한 평지 위에 많은 공장들이 포진해 있다. 아주, POSCO 등 눈에 익은 한국 기업의 로고들이 베트남 경제 개발의 열기를 느끼게 한다. 그 한가운데 반짝이는 새 간판, NNV 아래에는 합작사인 NOROO와 NANPAO의 로고가 나란히 도드라져 있었다.

NNV 생산 공장에서 환한 얼굴로 취재진을 맞아 준 이는 바로 NNV의 장태랑 총경리. NANPAO에서 부임해 온 그는 NNV의 부지 선정부터 생산까지 모든 것을 총괄해 온 선두 지휘자다.

“NNV의 사업 지역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중 베트남이 경제개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또 8500만 명의 인구 중 생산활동이 가능한 젊은 인구 층이 두터워 경제 발전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 있고요. 원유 등 부존 자원이 많다는 점도 발전 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처럼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다는 것이 이 나라가 그려갈 미래를 더 기대케 합니다. 그것이 NOROO와 NANPAO가 베트남을 거점으로 삼은 이유이지요.” 장태랑 총경리의 베트남에 대한 소개다. 곳곳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몇 달 전 없던 도로가 금세 생겨나는 등 지금의 베트남에는 건축 수요가 많아 각종 도로의 성장이 가파르다. 경제가 발전하면 그와 동반하여 도로 산업은 성장해 간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오토바이가 주를 이루지만 호치민의 도로 위에는 흠집 하나 없는 고급 외제차도 적지 않다. NNV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현재 건축용 도로와 공업용 도로의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최초의 자보용 도로 생산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코일코팅과 분체 도로 시장으로의 진입도 계획 중이다.

“작년 7월에 NNV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완공하고 올해 3월 말에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NOROO가 많은 도움을 주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요. 한국 기술자와 대만 기술자는 손발이 아주 잘 맞습니다. 베트남 현지 직원들과의 문화 차이에 따른 시행착오를 점차 극복하고 나면, 이제 막 시동이 걸린 NNV는 곧 거침없이 달릴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동남아시아까지, NNV가 물들인다!

NNV[NOROO-NANPAO PAINTS & COATINGS (VIETNAM) CO., LTD.]

장태랑 총경리

위기의 세계 경제 속에서 동남아시아의 경제도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거침없는 변화 속에 극복의 속도도 빠르다. 이러한 동남아 시장 진입을 위해 철저한 준비 끝에 올해 초 출범한 NOROO의 파트너가 바로 NNV[NOROO-NANPAO PAINTS & COATINGS (VIETNAM) CO., LTD.]다.

젊은 나라, 빠른 변화 베트남

NNV工厂位于距离胡志明市1小时车程的同奈（Dong Nai）省，这里是经济特区，很多工厂都选址于此。AJU、POSCO等熟悉的韩国企业标识让人感到越南经济开发的热潮，其中闪闪发亮的NNV新招牌上也标有纳路（NOROO）和南宝（NANPAO）的标识。

在NNV生产工厂以满面笑容迎接我们的正是总经理张泰郎。从南宝赴任的他统筹从NNV选址到生产的指挥者。

张泰郎总经理介绍说“NNV所在的东南亚地区中，越南的经济开发速度最快。另外，8500万人口中可进行生产活动的年轻人占多数，这更加快了越南的经济发展速度，而石油等丰富的资源也是增强其发展潜力的一个重要因素。值得一提的是，和韩国一样，如今越南的父母很注重子女的教育，这让人们对越南的未来更加期待。这些正是纳路和南宝将越南当作战略要地的原因。”

这里到处都在进行再开发建设，几个月前还没有的道路瞬间变呈现在眼前，如今的越南对建筑的需求与日俱增，这也促使了涂料产业的高速发展。一般来说，涂料产业是随着经济的发展而发展的。汽车产业也是如此。虽然目前越南还是以摩托车为主要交通工具，但在胡志明市的道路上豪华进口汽车并不罕见。NNV顺应这种变化趋势生产销售建筑和工业涂料，还计划将汽车修补漆生产第一个引入越南。此外，NNV还将进军越南的卷钢涂料和粉末涂料市场。

“NNV工厂于去年7月开始动工兴建，今年3月底正式开业，这得益于韩国纳路集团的大力支持。韩国和台湾技术人员配合得很顺利，只要克服由于文化差异导致的磨合阶段，刚刚起步的NNV立刻会飞奔起来。”

NNV的色彩从越南渲染到东南亚！

张泰郎总经理

全球经济危机正威胁着东南亚。但作为正在发展中的地区，尽管变化来势汹汹，这里克服变化的速度也极快。为进军这样的东南亚市场，经过周全的准备后，纳路与南宝的合作公司——纳路南宝涂料（越南）有限公司（NNV）于今年初正式成立了。





베트남의 땀별 아래 얼굴이 발개져서 부지를 선정하러 다닐 때면 ‘왜 낯선 곳에 합작을 하여 이런 고생을 하느냐’란 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긍정적인 대답을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과 대만의 기술, 베트남의 개발 욕구 등 장점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에도 많은 외국계 페인트 기업들이 먼저 진출해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가 한국처럼 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출발 순서에 상관없는 마라톤처럼 NNV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끈질기게 승부를 내고자 합니다. 2013년의 분체 도료 시장 진입, 2018년의 매출 2,300만 불 달성을 위해 현지 직원을 교육시키고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베트남 시장에서 NNV를 각인시키는 동시에 베트남을 넘어 주변국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장태랑 총경리와 강성용 부총경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목표를 이야기했다.

지난 3월 27일 개업식을 한 신생 기업 NNV, 그들엔 무엇보다 베트남 현지에 뿌리 내리고 가지를 펼쳐 나가야 할 임무가 막중하다. 베트남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장태랑 총경리와 NNV 현지 직원들이 나누는 함박 웃음과 결연한 의지는 튼튼한 우듬지가 되어 NNV를 키워나가고 있다.

准备马拉松的NNV

NNV在同奈设有工厂，在胡志明和河内还设有销售点。来自纳路的副总经理姜声庸正将销售网扩大到整个越南地区和周边国家。生产与销售等各方面的顺利进行得益于他所维持的良好合作关系。南宝和纳路是怎样结缘的呢？

张泰郎总经理介绍说“在台湾，南宝的815这个品牌无人不知，无人不晓，南宝公司也因此而闻名，目前在鞋子和工业用胶合剂领域可谓是世界领先企业。2005年，南宝与纳路建立了合作关系，以此良好缘分为契机不断发展，如今共同进军东南亚市场。”

为了给工厂选址，在越南的烈日下，张总的脸被晒得通红，甚至有人说“何必在这种陌生的地方合作吃这种苦头呢”。可是一年后的今天，我们找到了肯定的答案。如今韩国和台湾的技术、越南的开发热情等优势相结合，产生了意想不到的叠加效果。

“有过国外的涂料企业早早进入了越南市场，因此竞争也十分激烈。但是越南要达到韩国的经济水平，还有很长的路要走。就像马拉松一样，起跑顺序并不重要，NNV将建立中长期计划，通过不懈努力取得最后的胜利。为实现2013年进军粉末涂料市场、2018年销售额达到2300万美元这一目标，我们培训当地职员，发展客户，在越南市场提高NNV品牌知名度的同时，将市场范畴逐渐延伸到周边国家。”张泰郎总经理和姜声庸副总经理异口同声地说出了同样的目标。

NNV于3月27日举行了开业仪式。对他们而言，当务之急是扎根在越南当地，使企业发展尽快长出浓密的枝干。在越南骄阳下，张泰郎总经理和职员们的笑容与坚定意志成为坚实的树梢，促进NNV的不断发展。



순수한 세상을 그리는 순&수

(주)노루페인트 건축도료사업부 순&수 프로젝트팀

요새 자동차 광고를 보면, 자동차보다 새소리와 숲이 먼저 등장하곤 한다. 빠른 속도와 미려한 외관 못지 않게 환경적 면모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환경 문제는 이 시대의 목표가 되었다. 순&수는 건축 시장의 이러한 필요를 읽은 제품이다.



打造一个纯净的世界 纯&秀

NOROO涂料股份有限公司建筑涂料事业部
纯&秀项目组

最近的某个汽车广告中，最先登场的不是汽车而是树林和鸟鸣声.这说明人们对环保的重视不亚于汽车的速度和外观。“环境”问题现已成为当今的焦点，“纯&秀”也因此应运而生。



자극을 빼고, 기능을 더하다

요즘 NOROO의 건축도료사업부는 무척 바쁘다. 그러나 신이 난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순(純)환경 브랜드 순&수의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노루페인트 건축도료사업부 안성근 상무에 따르면 순&수 브랜드로 4, 5월 두 달 사이에 5만 5천 말 정도를 판매해 16억 매출이 발생했다고 한다. “단일 브랜드로만 이러한 매출이 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의 목표인 110억 매출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성근 상무의 말이다.

이러한 매출의 원인은 무엇보다 ‘순환경’이라는 카피처럼 혁신적인 제품의 힘 때문이다. 수지를 친환경 수지인 EVA로 전격 교체하여 냄새를 완벽히 잡고 기능은 월등히 높였다. 이 EVA 수지의 주원료는 식품첨가물에 사용될 정도로 인체에 무해하다. 이러한 수지 교체는 국내 페인트 업계에 있어서 최초이자 현재까지도 유일한 사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워 블로거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죠. 그 때 일반 주부들이 친환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냄새라는 것을 확실시하고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도장기술자들의 작업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평활성과 은폐력 등 페인트 도장의 처음에서 마지막,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냄새까지 확실히 마무리했습니다.” 건축마케팅팀 김봉제 부장이 힘주어 설명한 순&수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외부용 차열 도료의 경우에는 단열과 차열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더운 여름철에 냉방으로 인한 전기소모를 막아주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 환경의 보호에 보탬이 되는 바, 순환경 브랜드라는 이름을 더욱 당당하게 한다.



消除异味，强化功能

近来，NOROO的建筑涂料事业部异常繁忙，却又令人激动，因为三月上市的环保品牌“纯&秀”的销售呈直线上升趋势。NOROO建筑涂料事业部的安晟根常务表示：“纯&秀品牌仅4、5两个月就卖出了约100万升，约合16亿韩元，从单个品牌完成的销售额来看是前所未有的。如果保持这样的势头，预计今年可以顺利实现公司110亿韩元的销售目标。”

如此好的销售成绩完全归功于该革新性产品的环保功能。树脂全面采用环保EVA树脂，能够完全控制异味，全面提高涂料功能。EVA树脂的主要原料对人体无害，甚至可以用于食品添加剂中，目前在韩国涂料界使用这种树脂的尚属首例。建筑市场营销组金奉济部长表示：“我们曾经接受过Focus group的采访，借此机会听取了名博主们(power blogger)的意见。当时一般的主妇们判断环保的标准就是是否有异味，我们也在消除异味上倾注了全力。当然我们也顾全到让涂装工人的工作更加便捷顺畅。平滑性、遮盖力等，整个涂装过程以及工程结束后残留的气味我们都考虑到了。”金部长还强调：“纯&秀的优点远不止这些，外部用的遮热涂料具有遮热和隔热的功能，减少了夏季冷气的电力消耗，营造出惬意舒适的环境。节约用电有助于保护地球环境，同时也提高了‘纯环境’的品牌形象。”



• 안성근 상무



• 김봉제 부장





创意与合作的结果 纯&秀

正如所有的名著一样，“纯&秀”也并非一朝一夕就能完成的。在建筑技术开发组和建筑市场营销组埋头苦干的“纯&秀”项目组的工作人员从去年开始便废寝忘食地为品牌命名、开发树脂、进行上市后的宣传和营销活动，最终铸就了这一伟大的产品。“这就是团队精神，不是我自己做的，而是整个团队共同努力的结果。”技术开发组的安胤琇次长和金文佑课长虽然很谦虚，但却无法隐藏成功后的满足感。每当回忆起去除涂料中含有异味的成分，还要保持涂料物性；替换树脂后从调节原料采购、物流管理和技术领域的工序再到符合KS标准这些复杂的过程，他们都会暗自感到自豪。

建筑市场营销组的李廷五课长、李昌炫代理、李昇宰也同样感到非常有意义。为了给新产品命名，大家集思广益，随后为了配合涂料的销售旺季，大家马不停蹄的准备电台广告，奔波的同时大家也因即将到来的成功而兴奋不已。“那时就连公司聚餐时，大家都为‘纯&秀’的成功干杯，正可谓同心协力、团结一致。”

安晟根常务为拥有这样团结的职员们而感到无比开心和自豪。他说：“向不分昼夜辛勤工作的职员们表示崇高的敬意和感谢。”，“纯&秀”项目组制定了目标——到2015年要重夺建筑市场第一。为达成这一目标，他们重组了首都圈的流通营业组织。纯&秀将打造一个毫无污染的纯净世界。我们共同期待蕴含着组员们的创意与合作精神的“纯&秀”能够让这片土地上的建筑更加环保，更加美丽。



• 이정오 과장



• 이창현 대리



• 이승재 주임



• 안윤수 차장



• 김문우 과장

생각과 협력의 결과, 순&수

모든 명작이 그러하듯, 이러한 순&수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다. 건축도로개발팀과 건축기술팀, 건축마케팅팀에서 모인 지금의 순&수 프로젝트 팀은 작년부터 브랜드 네이밍, 수지 개발, 런칭 후의 홍보와 마케팅 과정을 거치면서 설 새 없이 뛰어왔고 그 결과 지금의 수작(秀作)을 완성하게 되었다.

“팀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건축도로개발팀의 안윤수 차장과 건축기술팀 김문우 과장의 말은 겸손했지만 뿌듯한 표정은 감추어지지 않았다. 도로에서 냄새가 나는 원료를 빼면서도 물성을 맞추고, 수지 교체에 따라 원료 수입과 물류 관리, 기술적 부분의 공정을 조절하며, KS 기준을 충족시키기까지 어려웠던 지난 개발 과정을 떠올린 탓이리라.

건축마케팅팀의 이정오 과장, 이창현 대리, 이승재 주임의 보람도 다르지 않다. 새 이름을 짓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던 날들에 이어 페인트 성수기 시작에

맞춰 발 빠르게 라디오 광고를 준비하고 래핑 버스에 시동을 걸면서 업무량과 성공 예감의 흥분도 동반 상승했다. “회식 때 건배도 ‘순&수’로 했죠. 정말 푹푹 뭉쳐 일했던 나날이었어요.”

안성근 상무도 이렇게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한 직원들이 너무 예쁘고 대견스럽다며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준 팀 직원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고 표현했다. “2015년까지 건축 시장 1위 탈환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수도권 유통 영업 조직도 개편했지요. 자극 없이 순수한 세상 만들기, 순&수로 이루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순&수 프로젝트 팀. 그들의 생각과 협력이 낳은 순&수가 이 땅의 건물들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꾸며가길 기대한다.



핑퐁 소리에

우정이.

퐁퐁.

더위가 가시지 않은 저녁, NOROO의 안양 공장 기숙사 지하에서 힘찬 기합 소리가 들려왔다. 그 곳에서 탕탕 소리를 내는 것은 다름 아닌 작은 탁구공. 달걀보다도 작은 탁구공은 거센 서브를 타고 꽃하며 튕기기를 반복했다. NOROO 탁구동호회가 모인 어느 날 저녁이었다.

NOROO 패밀리 탁구동호회



NOROO
Community Movement

마음이 열리는 곳, 탁구장

안양 공장 기숙사 지하의 탁구장은 바깥의 더위에 아랑곳없이 소름이 돋을 만큼 시원했다. 하지만 탁구에 열중한 회원들의 몸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렀다. “탁구는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전신운동입니다. 그러나 과격하지 않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즐길 수 있어 친목 활동으로나 건강 운동으로 손색이 없지요.” 탁구회 총무 (주)노루로지넷 정도원 대리가 설명했다. 그는 A4 문서 두 장에 탁구의 장점에 대해 출력해 왔을 정도로 탁구 마니아다. 그에게 탁구회의 결성 시기와 계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노루로지넷은 지입차 사장님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와 협조가 아주 중요하지요. 2008년 2월에, 두기수 지입차 사장님과 ‘탁구로 NOROO 가족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어보자’ 하는 마음에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목적대로 지금껏 여러 지입차 사장님들, 다른 계열사 직원들과 자주 만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체력도 보충하고요. 하하하” (주)노루페인트 방수재 영업팀 권정훈 주임도 말을 거들었다. “작은 테이블 주위에서 하는 운동이지만 운동량이 엄청나거든요. 업무 스트레스를 좋은 방향으로 풀 수 있는 운동입니다. 몰랐던 동료도 알게 해 주니 즐겁기도 하고요.”

생긴 지 3년 남짓밖에 안 되었지만 탁구 동호회의 정식 회원 수는 벌써 21명이고 가끔 와서 함께 운동하는 이들이 10명 정도 된다. 이렇게 회원 수가 늘어난 데에는 지금의 탁구장이 큰 역할을 했다. 이전에는 멀리 있는 지역기관의 체육관을 이용하느라 불편함이 컸는데, (주)노루로지넷 이민형 사장의 후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던 기숙사 지하를 말끔히 정리하여 작년 12월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6월 초에 페인트칠도 말끔히 하고, 마루도 저희가 직접 깔았답니다. 이번 기회에 사장님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요~” 탁구장의 회원 모두가 입을 모았다. 탁구장이 생겨서 좋은 것은 회원뿐만이 아니다. 가까운 곳에 언제나 개방되어 있는 탁구장이 생기니 오다가다 탁구를 치는 직원들도 많아졌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는 주말에도 서로 약속을 잡아 시합을 하기도 한다. 덕분에 서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늘었고 그만큼 일터에서 웃을 일도 많아졌다.

NOROO 가족의 화합과 배려를 목적으로 만든 동호회라 이름도 ‘패밀리 탁구동호회’. 목요일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이면 안양 공장의 탁구장에는 공 하나를 두고 땀과 웃음이 오고 갈 것이다. 그 문과 회원들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다!





햇빛이 짙었던 초여름, 하얀 도자기 위에는 색색의 붓과 함께 귀여운 웃음소리가 또르르 굴러다녔다. (주)노루케미칼 품질관리팀 서청원 과장 가족이 만든 도자기에는 그림과 함께 그날의 소리도 담겼다.

도자기에 행.복.을 그.리.다.



오순도순, 토닥토닥

“안녕하세요!” 깍듯이 인사하는 채은이와 달리 수줍어 엄마 뒤에 숨는 연우. 도자기 공방에서 만난 채은이와 연우는 서청원 과장의 두 딸이다. 가족 사진 촬영을 위해 옷을 똑같이 맞춰 입었지만 엄마인 이승아 씨에 따르면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다. “채은이는 여성스럽고, 연우는 남자아이처럼 활기차네요.” 하지만 낯선 곳에 와서인지 다섯 살 연우가 쑥스러워하고, 여덟 살 채은이는 의젓한 언니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번 패밀리 클래스는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으로, 컵이나 접시 등 미리 만들어 초별구이가 된 도자기에 직접 그림을 그려 보는 과정이다. 수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아무리 어설픈 그림이라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컵, 접시가 되기 때문에 의미도 깊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어 추억을 항상 되새길 수 있다. 채은과 연우에게는 그리기 쉬운 접시를 권했으나 이미 자기주장이 생긴 두 딸은 컵이 더 좋을까 보다. “컵 할 거야! 컵!” 하면서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는다. 부부와 딸들이 머리를 모아 어떤 그림을 그릴까 오순도순, 때로는 토닥토닥 하며 의논하는 모습에서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별처럼 반짝이는 일상의 행복이 엿보였다.



행복을 이루는 노력

파란 타이포그래피로 시원한 느낌을 주는 하얀 티셔츠의 패밀리룩 코디는 엄마인 이승아 씨의 솜씨다. 그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다 생각했는데, 아나나다를까 댄스강사로 활동 중이시라고, 날씬한 몸매에 세련된 말썽씨를 지닌 이승아 씨와 킬킬해 보이는 서청원 과장은 어떻게 만났을까? 몹시 궁금해진 기자의 질문에 “스무 살 때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7년이나 연애했고, 결혼한 지 이제 만 10년 차네요.”라며 이승아 씨가 시원스레 대답해 준다. 우여곡절이 많은 젊은 시절에 연애를 7년씩이나 하고, 한 집에 산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상큼한 느낌(?)을 주는 부부라니, 그 비결은 이어지는 설명에 있었다. “돌이켜 보면 아주 짧은 시간 같아요. 주중에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주말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하거든요. 관광도 하고, 온천도 가고, 딸들과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많이 하고요.” 즐거운 추억들로 바빠 채우다 보니 함께 한 세월이 짧게 느껴진다는 대답에 이 부부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낀다. 자녀의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 주말에 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하는 건, 간단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쉽사리 놓치곤 하는 행복의 노력을 이 부부는 10년간 이토록 즐겁게 이어오고 있었다.



유일무이한 작품, 가족

“나는 미술을 잘 하니까, 내가 할게~ 아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지게 자기 작품을 챙기는 채은이의 말에 서청원 과장이 머쓱하게 도움의 손길을 거둔다. 아빠가 보기엔 아무래도 토끼가 토끼답지 않은데, 채은이는 온전히 자기 손으로 완성하는 데 더 의미가 있는지 아빠의 도움을 딱 잘라 거절하는 중이다. 사실, 채은이가 맞다. 이 도자기 그림 체험은 자기가 그린 자신만의 그릇이라는 게 가장 큰 선물이 되기 때문이다. 서툰 붓질로 톡톡 점을 찍어 넣은 연우의 컵도 아주 근사한 작품이 되었다. 날짜와 이름을 써 놓고 나니 이제 완성된 도자기를 받아들 날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자매가 연신 “엄마 도자기 이제 언제 구워? 언제 와?”하며 기대에 들뜬 얼굴로 폴짝폴짝 뛰다. 이제 2주일 후면 매끈한 유약을 바르고 단단하게 구워진 컵과 접시가 서청원 씨 가족의 집에 배달될 것이다. 이날의 높은 웃음소리와 사랑스러운 눈빛들을 담고,



• 하얀 도자기 위에는 색색의 붓과 함께



• 귀여운 웃음소리가 또르르 굴러다녔다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장

서청원 과장 가족의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은 친환경 도자기 조명으로 유명한 NJ 라이팅의 특별 협조로 진행되었습니다. NJ 라이팅은 일반인의 도자기 체험은 불가능하여, 그 밖의 도자기 체험 공방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양 소재

- 세라워크 안양점 (031-388-2657) _ 1인당 1만 5천 원~2만 원 사이에 간단한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이 가능.
- 마루안 도자기 공방 (031-388-3691) _ 아동 도자반부터 전문반, 1일 체험 수업까지 다양한 도자 수업을 진행.
- 돌석도예박물관 (031-464-7734~5) _ 도예 전시와 교실을 함께 운영하여 정기 수강 프로그램과 테라코타, 초벌체험 등 간단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그 외 지역

- 이천 예원도요 (031-634-2244) _ 도자기 공장 견학과 물레 체험, 도자기 체험 등을 주중주말 관계 없이 제공. 전화예약 추천.
- 이천 각금재 (031-638-8359) _ 각금재는 초가집 펜션으로, 우리 재료로 만든 한식을 직접 빛은 도기에 제공하며 도자기 체험 공방도 함께 운영.
- 경주 하늘터발 (054-742-4002) - 아름다운 한옥 펜션 하늘터발은 아궁이 장작불 떼기, 도자기 제작 체험으로 한국의 정취 선사.

장소협찬 및 도움

NJ Lighting (031-999-7088 / www.NJNJ.co.kr)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세요!

다음 패밀리 클래스에 참여하실 사우 가족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접수: 노루홀딩스 인사교육팀 문지혜 대리(jrmoon@noroo.co.kr),

02-2191-7720



일상에서 생명을 발.굴.하.다.

입체만화조형작가 **최 정 현**

미켈란젤로가 그랬던가. 자신은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 갇힌 영혼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최정현 작가는 기성품 속에 숨은 생명을 찾아주는 예술가다. 미켈란젤로가 돌에서 인간의 영혼을 깨내듯 그는 소화기에서 펭귄을, 의자에서 코끼리를 깨내어 보여 준다.



기성품 속에 숨은 생명을 찾아주는 예술가
입체만화조형작가 최정현

뚝뚝뚝뚝 생활 예술가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빨간 펭귄들이 군집해 따가운 눈맞춤을 한다. 둥근 몸에 동그란 눈, 굵은 발톱과 귀여운 부리가 그동안 익숙해진 만화 속 펭귄 캐릭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뜨끔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제목이 ‘뜨거운 나라에서 온 펭귄’이에요. 지구 온난화로 열을 받았거든요.” 최정현 작가의 말을 따라 자세히 보니 저 빨간 몸통은 소화기, 부리는 굴삭기의 발톱으로 만들어졌다. 거칠게 난무하는 지구상의 개발 활동에 뜨거움을 식혀달라는 열망이 티질 듯 펭귄을 채우고 있음이다. 입구 바닥에 납작하게 깔려 관람객을 깜짝 놀라게 하는 〈로드킬〉도 마찬가지다. 타이어를 고양이 모양으로 잘라 바닥에 깔았을 뿐인데, 로드킬의 잔인함이 유머에 걸러져 전해온다.

“제목과 재료, 조형물을 보면 느낌이 딱 올 거예요. 기성품들은 정확한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해요. 그래서 작품의 의도를 아주 잘 전달할 수 있지요. 재활용은 부차적 목적이고, 제품의 의미를 활용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어요. 고물상이나 재활용센터에서 재료를 구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장소는 대형마트예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이 제 재료이지요. 그러니 정크아트가 아닌, 입체만화조형이라고 불러 주세요. 하하하”

작가의 말마따나 그의 작품은 정크아트라는 범주에 넣기에는 색다른, 만화적 유머가 덧붙여져 있다. 오랜 시간 삼등신의 인물들을 작은 컵 안에 그려 넣으며 단련된 묘사 능력에 용접공에게서 1년간 배운 전문용접 기술은 용광로, 배관, 철근 등 거친 대형 폐기물에서도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동물들을 탄생시켰다. 사회적 시선으로 지은 제목들은 웃음과 함께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코브라를 공격하는 마우스 떼 〈네티즌〉은 네티즌들의 강력한 힘을, 〈국회의사당〉은 한국 정치에 대한 염원을 풍자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애니미즘이 현실 사회에 만화적으로 완벽하게 해석됨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전달되는 작업 방식이다.



일상을 DIY하는 작가

만화가에서 전국적 체인을 둔 공방의 개발이사로, 그리고 조형작가로 창조의 다변화를 이루는 그는 시인이자 건축가였고 화가이면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처럼 르네상스형 인간임을 증명한다. 그에게 이러한 창조의 원천을 물어보자, ‘어차피 할 것’이라는 평범한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차피 할 거 이것게도, 저렇게도 해 보자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애도 모두 키우지만 나는 어차피 키울 바에 만화로 그려보자 해서 『반쪽이의 육아일기』를 냈고, 어차피 부부인데 평등부부하자 해서 상도 받았지요. 어차피 가구 필요한테 만들어 쓰니 공방도 내게 되었고요. ‘어차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를 테면 레드오션이지요, 전 그걸 조금 다른 개념으로 손 대 본 것뿐입니다.” 레드오션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퍼플오션, 그는 그것을 일찌감치 구체화해 오고 있었다.

“제가 작품 소재를 하도 다양하게 써 놓으니 다른 작가들이 소재 발굴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항상 일상에 충실했던 것뿐인데 말이지, 전 무지개 너머에 뭔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넘어가면 무지개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눈 앞에 있는 것에서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날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아요. 나 자신이 오늘을 좋은 날로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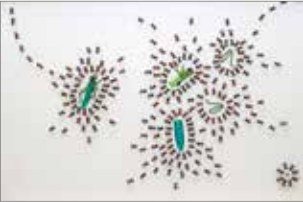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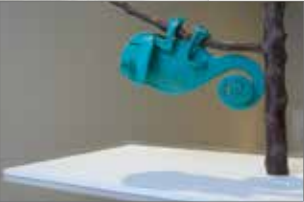
내 손으로 오늘을, 현재를 좋은 날로 만드는 진정한 ‘Do It Yourself’ 작가. 그의 DIY 철학은 작품과 그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것처럼 일상에 안테나를 세운다면 누구나 하루하루 새로운 보물을 캐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전시 정보

제목	반쪽이의 고물자연사박물관
장소	충무아트홀 갤러리 (www.cmah.or.kr)
기간	6월 23일~8월 28일, 오전 10시~오후 6시, 월요일 휴관
관람료	일반 : 4,000원 / 24개월~19세 미만 : 3,000원 / 단체(20인 이상) : 2,000원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최정현 작가와의 대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상설프로그램으로 <나무곤충 만들기(참가비 4,000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나무곤충 만들기>는 반쪽이 사이트(shop.banzzogi.net)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색, 서로를 꿈꾸다

인간에게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외에 다른 감각이 하나 더 존재한다. 바로 '공감각'이다. 이는 하나의 자극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감각이 연합되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파란 색을 보면 시원함을 느낀다거나 높은 음은 가벼운 색을 연상케 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공감각은 '색'에 의한 시각적 자극과 그에 의한 다양한 지각이 주를 이룬다.

음악을 그린 화가들

공감각 중 색깔을 음악으로 옮기거나 음악을 색깔로 옮기려는 공감각적 연구 활동은 피타고라스 때부터 뉴턴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색 체계를 지구와 행성의 관계로 삼고 행성에 색을 부여했던 피타고라스는 12 음계를 색채와 연결하기도 했고 뉴턴은 17세기에 빨강-도, 주황-레, 노랑-미, 초록-파, 파랑-솔, 남색-라, 보라-시 등으로 무지개의 일곱 가지 색을 7음계에 부여했다. 특히 괴테는 색이 감성과 도덕성과 함께 언어처럼 상징성을 내포한다는 색채론을 내세워 인상주의와 추상 미술을 뒷받침하고 또한 그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색채론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색깔과 그림을 통해 음악을 느끼고, 반대로 음악을 통해 색을 연상하거나 풍경,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평범한 사람의 경험이나 상상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무의식 중에 진행되는 지적 활동이다. 특히 예술가들은 이러한 공감각적 활동을 그림으로, 음악으로 구체화하곤 한다.

몬드리안의 작품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를 보면 마치 뮤지컬을 감상하는 듯한 경쾌한 율동감을 느끼게 된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신시가지의 질서정연함과 마천루의 들쭉날쭉한 스카이라인의 경관을 보고 브로드웨이의 활기찬 공연과 음악에서 자극 받은 그의 감흥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림이다. 이전의 그림에서는 검은 선에 의해 좀더 엄격하게 닫혔던 구조가 이 그림에서는 보다 열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색을 들려준 작곡가들

그렇다면 음악가의 경우는 어떨까? 작곡가나 연주자 또한 음을 색에 빗대거나 색을 자신의 음악에 담아내고자 여러 실험을 하였다.

악성 베토벤은 우울한 느낌이 강한 나단조를 죽음의 조성, '블랙 키'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실제로 모차르트의 레퀴엠(죽은 이를 위한 미사곡)에는 나단조의 곡이 포함되어 있다. 〈왕벌의 비행〉으로 유명한 립스키 코르사코프는 “햇빛은 다장조, 붉은 딸기 색은 올림마장조”라고 표현했으며, 마단조를 무척 좋아하는 낭만파의 거장 슈베르트는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장밋빛 활을 가슴에 들고 있는 듯하다”고 이 음을 칭송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현대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 역시 음악을 색채에 비유한 작곡가다. 독실한 카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사랑과 이국적 리듬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악보에 옮긴 그는 “음을 통해 색을 본다”며 공감각적 능력을 음악으로 펼쳐 보였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작곡가 알렉산드르 스크랴빈은 신비주의 화음을 기반으로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 뿐 아니라 그것들이 조합되어 이루는 코드, 그리고 인간의 영혼에도 색과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신의 작품 〈프로메테우스〉를 공연하면서 '루체LUCIE'라는 컬러 조명 오르간을 사용했는데 이 작품은 어두운 곳에서 연주될 때 오르간의 건반을 누름에 따라 여러 빛깔이 스크린에 비춰져 환상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었다.

소리와 색깔뿐 아니라 다양한 자극들 사이의 교류와 교차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 주고 더욱 풍성한 반응을 끌어낸다. 공감각적 능력을 고양시키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은 예술작품과 생활 속 아름다움의 발전을 이루어 갈 것이다.



자연재해,

인간을 돌이켜보게 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중국과 일본의 대지진, 미국의 허리케인 등으로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자연재해가 불러온 제2의 환경 오염이다. 대지진이 뒤흔든 원전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은 바람을 타고, 해류를 따라 그 끝을 예측할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인공적 통제 기술을 한 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그 동안 오만하지 않았나 반성할 일이다.

기상이변? 새로운 표준!

2010년 1월 아이티에서 강진이, 2월에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강진과 지진해일이 일어났다. 이어 4월, 중국 칭하이성의 땅이 뒤흔들렸고, 같은 날 아이슬란드에서 폭발한 화산은 유럽의 공항들을 폐쇄시켰다. 여름이 되자 러시아에서는 흑서와 홍수, 산불이 이어지고, 파키스탄에는 최악의 홍수가 덮쳤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총 25만 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2180억 달러의 손실을 안겼다.

올해도 지구는 얄전히 있지 않았다. 2월, 뉴질랜드에서 강진이 일어난 것에 이어 3월에는 일본의 강진으로 1만 500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 갔으며 미국에는 홍수와 허리케인이 연이어 발생하여 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의 홍수에 이어 이번엔 가뭄이 덮쳤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연속은 이제 기상이변이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미 미국의 과학자 모임인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이러한 이상 기후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난화로 인한 폭우와 폭설, 한파, 가뭄, 해빙과 영구동토층의 붕괴 등을 새로운 기후 도래로 인정하고 정확한 기상예보시스템과 재난대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미래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이 새로운 표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고착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유엔에 따르면, 이러한 자연 재해들은 주로 인위적 환경 변화 때문에 증가해 왔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30년 동안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한해 평균 6%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산업화 혁명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0.74도 상승했고 남극은 이 온도의 3배가 넘는 2.5도가, 북극 역시 지난해 온도가 평년보다 5도 이상 올랐다. 피터 한센 유엔 비상구호 조정관은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산림 개척 및 농지 개발, 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자연 재해가 늘어남과 동시에 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짐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자신들에 대한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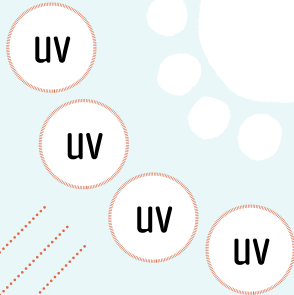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화석에너지를 원동력으로 삼아 내달리며 가파른 기술 개발로 자연의 법칙을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 필요에 따라 강을 길로, 바다를 밭으로 만들었으며 식량 증진을 위해 숲을 목장으로 바꾸고 가축 및 곡물의 생육을 빠르게 조정하였다. 그것은 인류의 생활에 있어 많은 부분 개선을 가져왔다.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이전보다 폭넓은 계층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과 식료품을 공급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개량되며 양이 늘어난 식료품은 자연 그대로의 것에서보다 적은 영양소를 품고 있으며, 도시 속 생활 환경에는 공기 오염과 치열한 경쟁 체제가 쾌적함과 함께 들어섰다. 지구적 온난화는 홍수와 가뭄을 일으켜 농작물의 생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에 대한 경고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터 한센 유엔 조정관의 말처럼 자연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인간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되는 자연 재해는 이러한 인간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식량부족을 막기 위해 유전자 조작 기술로 기후 변화에 강한 농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과거의 대처법이다. 때로는 인간의 기술에 대한 맹신을 접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할 필요도 있다. 자연재해를 계기로 인류는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공존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CRISIS





선글라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키는. 방패.

눈부신 태양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다. 태양의 열기와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적이라는 사실은 일반상식이 되었지만 자외선이 눈 건강에도 치명적이라는 것은 쉽게 놓치곤 한다. 피부에 선크림이 필수인 것처럼 건강한 눈을 위해서 선글라스 착용도 필수라는 것! 눈을 보호해 주는 선글라스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자.

눈 건강 최대의 적은 자외선

최근에는 자외선 차단막 역할을 하는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 지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외출 시 모자와 함께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모자는 태양으로부터 직접 내리쬐는 자외선만 차단할 수 있을 뿐, 건물 벽이나 유리창으로부터 반사되는 자외선까지 막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대도시 대형 건물의 유리창에서 반사되는 자외선 양은 직사광선에 비해 113%, 벽에서 반사되는 양은 70%에 달하므로 각종 유리 건물에 둘러싸인 도시에서 인체의 자외선 노출량은 급상승한다.

그 중 눈이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각막화상, 각막염, 백내장을 비롯해 녹내장, 황반변성 등 여러 안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우리나라 40대 인구 중 4%가 백내장, 2~3%가 녹내장을 가지고 있는데 각막염, 황반변성, 안구손상까지 포함하면 약 10% 정도가 자외선에 의한 안질환으로 고통 받는 셈이다. 이러한 질환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되는 것이 아니다. 유아기 때부터 성인기를 거치며 꾸준히 자외선에 노출된 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선글라스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글라스의 힘은 렌즈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디자인이나 브랜드보다 자외선 차단과 눈부심 방지 기능을 우위에 두어야 한다. 렌즈가 UVA, UVB를 98% 이상 차단하는지가 핵심이다. 제품에 부착된 UV마크나 품질보증서를 통해 UV 400nm(나노메터)의 자외선 차단 코팅 렌즈를 선택하고, 전문안경점에서 자외선 측정기로 검사하여 확인한다면 더 확실하다.

렌즈 색의 진하기는 자외선 차단과 크게 상관없지만 너무 짙으면 동공을 확대시켜 도리어 자외선을 많이 받아들이게 하고, 가시광선이 제대로 투과되지 않아 운전 중 시야확보에 방해가 되므로 눈동자가 보이는 정도의 컬러 농도인 75~80%가 적당하다.

렌즈 색상의 경우, 갈색 렌즈는 빛이 잘 흡수되는 청색 빛을 여과시켜 시야를 선명하게 해주어 주로 운전시에 적합하다. 회색 렌즈는 색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장시간 착용하는 사람에게 적당하며 녹색 렌즈는 색상 식별이 빠르고 눈의 피로감이 적어 어디서나 무난하다. 은색 미러 코팅렌즈는 표면을 거울처럼 코팅한 것으로 빛 반사가 심한 스키장, 백사장에서 쓰는 것이 좋다. 파란 렌즈는 보기에는 시원하지만 빛을 산란시켜 사물이 잘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태양빛이 강하지 않은 날이나 실내에서 착용하는 것이 적당하고, 감광 렌즈는 빛을 인식하여 실내에선 투명하게, 야외에선 진하게 변하므로 안경을 바꿔 써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선글라스의 테는 눈 주위를 넉넉히 덮는 디자인이 좋다. 그래야 정면에서 들어오는 자외선뿐 아니라 얼굴 위와 양쪽에서 들어오는 자외선까지 막아줄 수 있다. 플라스틱 테의 경우엔 고열에 의해 틀어질 수 있으므로 여름철 자동차 실내나 백사장 위에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선글라스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코팅막에 손상이 간다거나, 수축과 팽창으로 균열이 생겨 렌즈의 투과도나 자외선 차단 효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은 2년 정도가 적당하다.

어린이용 선글라스

성장기 어린이의 눈은 성인보다 자외선에 더 취약하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활동성이 높고 넘어지기 쉬워 파손 시의 안전성에 유의하여 선글라스를 골라야 한다. 2009년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전실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10명 중 1명은 선글라스를 착용하면서 뾰족한 부위에 긁히거나 테가 부러져 베이고, 착용 부위에서 발진이 나는 등의 경험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어린이용 선글라스 렌즈는 충격에 강한 폴리 카보네이트 소재가 안전하며, 테의 경우 유연하고 잘 구부러지는 것을 선택한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완구가 과도하게 달려있거나 렌즈의 착색이 불량한 장난감용 선글라스는 안전하지 않다.

디자인은 어른들 취향에 맞춘 보잉 스타일이나 오버사이즈 디자인은 적합하지 않으며 눈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는 랩-어라운드 디자인이 좋다. 선글라스가 너무 크면 흘러내려 보행 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얼굴에 딱 맞아야 하며 분실 방지 및 흘러내림을 줄이기 위해 안경 줄을 달아주는 것이 좋다.

또 어린이는 시력 변화가 빈번하므로 평소 안경을 썼다면 선글라스에도 도수를 넣고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근 주요 일간지들은 새로 지어진 모 관공서가 꺾뚝으로 변한 것에 대한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3,222억을 들여 2년 전 완공한 건물이 초여름 더위에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도록 올라, 근무자는 물론 민원인에게도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기사에서는 이 현상의 원인을 외관 디자인을 강조해 외부 벽면을 유리로 덮은 '글라스 커튼월' 구조에서 찾았다.

우리 외벽은 겨울철에 일반 단열벽체보다 열 손실이 크고 여름철에는 복사열로 유리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추울 때는 더 춥고, 더울 때는 더 덥다. 따라서 가중된 냉난방에 전력은 낭비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투명하고도 세련되어 보이는 유리 건물의 미적 장점을 포기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해 대체재를 찾아야 하는가? 아니다. 외벽을 유리로 감싼 뒤에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바로 에너지세이버의 적용이다.

(주)노루페인트의 에너지세이버는 유리의 투명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시광선은 그대로 투과하고 적외선 및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태양복사열을 차단하는 특수나노 코팅제이다. 에너지세이버를 코팅하지 않은 곳과 코팅한 곳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고 5도까지 날 정도로 이 제품은 실내 온도를 지키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한다. 에너지세

이버 외에도 로이(Low-E) 코팅 유리와 같은 특수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투명하고 미려한 유리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고가인 탓에 시공사 중심인 우리나라의 건설 구조에선 잘 쓰이지 않으며 이미 준공이 끝난 건축물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열차단용 필름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의 관공서의 경우에도 매해 필름을 바꿔줘야 하는 문제에 걸려 시공을 포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리 건물이 많아진 요즘, 에너지세이버는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든 유리에 적용이 가능해, 일반 유리를 기능성 유리로 쉽게 바꾸어 주며 한번 적용하면 약 10년 이상의 수명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주)노루페인트의 정성현 이사는 “에너지세이버 차열코팅제 시공 후 절약하는 냉·난방비를 감안하면 4년 정도면 시공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형 공공기관에 시공하여 에너지를 절감시킨 사례가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대형 빌딩과 아파트, 주택, 상가까지 고객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더위에 높아진 불쾌지수로 에어컨 버튼을 연신 누르기 전에, 에너지세이버로 먼저 들어오는 열부터 차단해 보자. 에너지 절감 지수가 높아지고, 전기세는 낮아질 것이다.

에너지세이버, 더위로부터 건물을 지킨다!

최근 들어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그 강도 또한 높아지면서 냉방에 따른 전력 소모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전력 소모량의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적정 실내 온도 준수를 권고하지만, 일단 후끈해진 실내에서 에어컨의 온도 조절 버튼을 자주 누르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해결책은 '냉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열'에서 찾아야 할 일이다.

ENERGY SAVER, 通过隔热保护建筑!

最近酷暑来得越来越早，温度也不断升高，制冷所用耗电量也大幅增加。为节约用电，政府反复强调控制适当的室内温度，但酷暑难耐，人们还是不停地按遥控器调节室内温度。实际上，解决问题的根本办法不是“制冷”而是“隔热”。

最近，主流媒体对新建成的某行政公署变成蒸笼一事作了报道。报道中称：斥资3,222亿韩元，于2年前竣工的该建筑物，初夏时的室内温度便已超过30度，这给工作人员和信访人员带来了极大的不便。报道还称：为强调外观设计，建筑外墙全部采用玻璃结构是导致这一现象的主要原因。

玻璃外墙在冬季时的热损失量比普通隔热墙大，而夏季由于太阳辐射室内温度又会大幅上升，因此冷的时候会更冷，热的时候会更热，这必然导致供暖和制冷的电力浪费。难道为了节能我们就必须放弃玻璃建筑透明简约的外观优点吗？其实并不然。我们有办法既保持玻璃外墙的设计又提高能源的使用，这就是“ENERGY SAVER”。

纳路涂料股份有限公司的“ENERGY SAVER”是一种特殊的纳米涂料，这种涂料保持了玻璃原有的透明性，并通过阻挡红外线和紫外线来阻断太阳辐射热，使用该产品后，室内温度最高可达5度的差异。除此之外，使用Low-E涂层玻璃这种特殊玻璃也能达到相同的效果，但因其价格较高，目前在以施工公司为主的韩国建设工程体系中还无法广泛应用，也很难在已经竣工的建筑物上使用。另外，还有一种贴隔热膜的方法。曾经有报道说前面提到的行政公署曾使用过这种隔热膜，但因存在每年需要更换的问题最终被放弃。因此随着玻璃建筑的不断增多，最近“ENERGY SAVER”备受关注。该产品适用于所有的玻璃，可以将普通玻璃轻松变为功能性玻璃，而且只要使用一次就能维持10年以上的寿命。纳路涂料股份有限公司郑成宪理事表示“使用ENERGY SAVER所节省的冷暖气费用，相当于用4年左右的时间就可以收回施工所花费的成本”。由于该产品已应用到大型公共机构建筑并广受好评，最近大型建筑、公寓、住宅和商家的客户咨询不断增加。

酷热难耐，在反复按空调键之前，试试用ENERGY SAVER来隔热吧！随着节能指数的不断提高，电费将不断下降。



에너지세이버





희망과 나눔 음악회 개최



KNT,
중국 심천 창업판 증권거래소에 상장



ERP 프로젝트 본격 추진

(주)노루홀딩스

NOROO控股股份有限公司

+희망과 나눔 음악회 개최

(주)노루페인트의 창업주인 故 한정대 회장의 이웃사랑과 도전정신을 잇기 위해 장녀 한현숙 이사장이 설립한 비영리 장학재단인 양호재단이 (사)미라클 오브 뮤직, 부산 소년의 집 알로이시오와 함께 〈희망과 나눔 음악회〉를 오는 7월 23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다.

공동주최기관인 미라클 오브 뮤직은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음악을 통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부산 소년의 집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다양한 소질과 특기를 개발해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고 있는 양육시설이다. 특히 이 곳은 뛰어난 실력의 축구부와 관현악단으로 유명한데, 관현악단은 지난 2월 음악인의 꿈의 무대라 불리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성공리에 마치기도 했다.

이번 음악회는 정명훈의 아들이자 차세대 지휘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민의 지휘로 말리의 교향곡 1번이 연주되며, 베토벤의 삼중협주곡에는 정명훈이 피아니스트로 참여한다. 또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악장인 스베틀린 루세브가 바이올린을,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수석 연주자로 활동 중인 이상 앤더스가 첼로를 맡아 연주한다.

부산 소년의 집 관현악단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리는 이 음악회에 (주)노루홀딩스와 (주)노루페인트는 후원을, 각 NOROO계열사는 협찬을 통해 이름다운 뜻을 함께했다.

希望与分享音乐会

为传承NOROO集团创始人韩鼎大会长的亲仁善邻和挑战的精神，由长女韩玄淑理事长所设立的慈善奖学基金会扬昊财团将于7月23日与(社)Miracle of Music、釜山少年之家Aloisius在艺术殿堂共同举办《希望与分享音乐会》。

Miracle of Music是世界级著名指挥家郑明勋设立的非营利性社会团体，旨在通过音乐创造一个和谐的世界。釜山少年之家Aloisius是一个把儿童作为权利主体，开发儿童的各种天分和特长，帮助儿童健康成长的保育服务机构，这里以实力高超的足球部和管弦乐团而闻名。今年2月份，其管弦乐团在纽约卡内基音乐厅成功举办了名为“音乐人的梦想舞台”的音乐会。

此次音乐会上郑明勋的儿子——被誉为新生代指挥家的郑敏将指挥马勒第一交响曲，并担任贝多芬三重协奏曲的钢琴演奏。另外，由首尔市立交响乐团指挥Svetlin Roussev担任小提琴演奏，德累斯顿国家交响乐团首席演奏家Isang Enders担任大提琴演奏。

本次音乐会由NOROO控股股份有限公司和NOROO涂料有限公司协办，NOROO各子公司共同参与赞助。

+NOROO 그룹, 중국 투자의 결실을 맺다

NOROO 그룹이 2대 주주로서 전략적 투자를 실행한 중국 상해 소재 자동차도로 생산·판매 기업인 KNT가 5월 31일 중국 심천 창업판(차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IPO)되었다.

NOROO 그룹과 2007년 9월 자본참여 및 공동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한 KNT는 고성능 자동차도로 시장의 중국 내 유일한 로컬민영기업이다. KNT는 세계 최대 자동차 소비대국으로 성장한 중국 시장에서 NOROO 그룹과의 시너지 전략으로, 글로벌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연평균 30% 이상의 급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다.

KNT는 이번 상장을 통해 한화로 약 800억 원의 공모 자금을 확보할 예정으로, NOROO 그룹은 중국 내 사업에서 M&A 등 시장 확대 전략을 더욱 강하게 취할 수 있게 되었다. IPO 신청 접수 후 11개월이라는 최단기간 내에 차스닥에 상장할 정도로 뛰어난 실적을 낸 KNT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NOROO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5년 내 중국 내의 글로벌 다국적 도로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NOROO集团, 中国合资公司成功上市

NOROO集团作为第二大股东进行战略性投资的上海金力泰化工股份有限公司于5月30日在中国深圳证券交易所创业板正式上市。

上海金力泰化工股份有限公司于2007年9月与NOROO集团正式合作，是中国高性能汽车涂料市场上唯一一家民营企业。在中国这个世界最大汽车消费市场上，通过与NOROO集团的合作，与全球跨国企业竞争，并保持每年30%以上的高速增长。

上海金力泰化工股份有限公司在短短11个月内就完成上市并取得突出业绩，预计将募集大约800亿韩元的资金，而NOROO集团也将通过M&A等战略强化中国市场的发展。今后双方还将继续合作，有望在5年内将公司打造为世界一流企业。

+ERP 프로젝트 본격 추진

NOROO 그룹은 새로운 글로벌 ERP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ERP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계열사 및 해외 법인 증가에 따라 요구되어졌던 정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확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ERP 프로젝트는 회계 및 자금 관리를 외부 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회계 업무를 체계화, 자동화하며 계열사 및 조직 간의 연결 업무로 중복 업무 처리를 최소화하고 자료를 취합, 분석, 승인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계열사 간의 구매 및 원자재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구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자 하는 등 생산과 관리에 있어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 6월까지 계열사별로 단계적 추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RP项目正式启动

NOROO集团从6月份正式启动全新的全球ERP系统开发项目。据预测，随着NOROO的子公司和海外法人的增加，新ERP项目的启动将确保所需要的信息系统的升级和扩大。与此同时，新ERP项目将与外

部系统联动实行会计和资金管理，这有助于实现会计业务的系统化和自动化，并通过连接子母公司间的业务，最大限度的减少业务重复，也将有助于资料的收集、分析和签署。另外，通过子公司间原材料采购和相关信息的共享，优化采购过程等，给生产和管理提供方便和有效的数字业务环境。这个项目将于2013年6月在各个管理公司中逐步推行。

+NOROO 통합 메신저 오픈

NOROO 그룹사 대상의 NOROO 통합 메신저(MS Lync2010)가 6월 1일 오픈되었다. NOROO 통합 메신저는 실시간 일반 텍스트 메신저, 음성 통화, 화상 통화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여 직원 간의 원활하고 편리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네이트온 및 MSN 등 외부 메신저는 7월 1일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외부를 향한 보안에는 더욱 철저하되 내부 소통에서는 더욱 자유로워지리라 기대한다.

NOROO公司内部即时消息软件开放

以NOROO集团下属所有公司为对象的NOROO内部即时消息软件MS Lync2010于今年6月1日正式投入使用。MS Lync2010可以提供即时文本信息、语音聊天、视频对话等多种服务，有助于职员间的交流。与此同时，为防止内部信息泄漏，从7月1日起公司停止了NateOn和MSN等外部聊天工具的使用。期待通过此项措施能够进一步加强内部业务的保密工作，使内部沟通更加自由顺畅。



함신의 지휘자와
우수소감문 수상자와의 만남



㈜노루홀딩스 관리 부문 워크샵 진행



근로자의 날, 모범 근로자 표창

✦함신의 지휘자와 우수소감문 수상자와의 만남

지난 3월에 있었던 노루가족 초청 음악회의 소감문을 공모한 결과, ㈜노루비케미칼 조영호 사장, ㈜노루비케미칼 전략기획팀 김정희 과장, ㈜노루알앤씨 관리팀 김윤형 차장, ㈜노루페인트 건축도로개발팀 방양국 차장, ㈜DIT 경영관리팀 이선욱 실장 등 다섯 명이 우수감상문 작성자로 선정되었다. 이는 노루가족 초청 음악회의 지휘를 맡았던 KBS교향악단의 함신의 상임지휘자가 모든 글을 직접 읽은 후 선정한 결과로, 함신의 지휘자는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NOROO 가족의 문화 수용 수준이 상당히 높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열정이 숨겨져 있으며, 회사에 대한 충성과 열정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NOROO 가족이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더욱더 윤택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지길 희망하기도 했다. 함신의 지휘자는 감상에 대한 보답으로 우수감상문에 선정된 이들을 KBS교향악단 마스터시리즈〈말러교향곡〉연주회에 초청하였으며 공연 직후 함께 사진 촬영을 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咸信益指挥家会见优秀感想文获奖者

今年3月举办的NOROO家族邀请音乐会的感想文征集活动正式结束。纳路碧化学有限公司的赵英镐社长和战略企划组金正熙课长、NOROO特种树脂有限公司管理组金胤亨次长、NOROO涂料有限公司建筑涂料开发组房洋国次长、DIT经营管理组李仙旭室长5人被评选为优秀感想文作者。本次评选由NOROO家族邀请音乐会指挥，KBS交响乐团常任指挥咸信益担任。咸信益坦言说：“本次音乐会大大提高了NOROO家族的文化需求，体现了他们对古典音乐的热情，这也同样包含着对公司的忠诚和热情”。另外，NOROO家族希望通过此次音乐会提高幸福指数。为表示感谢，咸信益指挥家邀请优秀感想文获得者观看KBS交响乐团大师系列《格伦米勒交响乐》演奏会，演出之后还一起拍照，留下了美好的回忆。

✦(주)노루홀딩스 관리 부문 워크샵 진행

(주)노루홀딩스 관리 부문은 6월 24일~25일 이틀간 강화도에서 워크샵을 가졌다. 임직원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매해 마련되는 이 자리에서 30여 명의 참석자들은 '즐거운 회사 만들기'라는 주제로 회의를 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한편,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가진 신규사업팀 육승준 과장의 지도 아래 레크레이션을 즐기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회사에서와는 다른 모습을 서로 발견하게 되어 재미있고 더욱 정이 드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바쁜 업무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마련한 워크샵은 참석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소통을 길을 넓히는 장이 되어 주었다는 평이다.

NOROO控股股份有限公司管理部门研讨会进行中

NOROO控股股份有限公司管理部门于6月24日至25日在江华岛召开了为期两天的研讨会。为了促进全体职员的团结与和睦，本研讨会每年举办一次。此次研讨会的30多名与会者以“打造愉快的工作氛围”为主题，坦诚地进行了交谈，并且在新兴产业组陆昇俊课长的指导下开展了娱乐活动。某位与会者发表自己的感言说：“在这里看到了大家不同于在公司上班时的样子，真的很有意思，也更加深了彼此的感情。”在繁忙的工作中抽出宝贵的时间举办的研讨会成了大家消除精神压力，拓宽沟通渠道的重要途径。

(주)노루페인트

NOROO 涂料股份有限公司

✦쿨비즈 캠페인

(주)노루페인트는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냉방기의 실내 적정 냉방온도를 26~28℃로 준수하는 에너지 절약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실내 적정 냉방온도에서의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타이의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흑서기(6월~9월) 동안 관리직 및 영업직을 대상으로 쿨비즈 근무를 실행한다.

쿨비즈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넥타이와 양복 상의를 착용하지 않은 캐주얼한 비즈니스 패션으로, 2007년부터 매년 여름철 흑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 및 기술 부문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반팔 근무복을 착용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여름의 흑서가 장기화될 것을 감안하여 1개월을 연장, 9월까지 쿨비즈를 실시할 예정이나 외부 손님을 맞이하거나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넥타이를 착용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을 권장한다.

夏季清凉商务启动

NOROO涂料股份有限公司为了应对居高不下的油价问题，正积极开展将室内温度设置为26~28℃的节能活动。同时，为了提高在室内适当冷气温度下的工作效率，实行了酷暑期间（6月~9月）男职员可以不系领带的清凉商务模式（Cool Biz）。

夏季清凉商务（Cool Biz）是一种通过不系领带不穿西服上衣来降低体温的商务模式，从2007年开始每年都会在夏季酷暑期间实行，生产和技术部门可以穿由公司提供的半袖工作服。考虑到今年夏季的酷暑期会比较长，清凉商务计划将延至9月份。面会客户或某些正式的社交场合，建议使用弹性的系领带制度。

✦근로자의 날, 모범 근로자 표창

함안군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역의 노사문화 안정과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 함안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연 〈2011년도 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주)노루페인트 칠서공장 도로생산팀의 차지훈 주임이 모범근로자 군의회 의장상을, 생산기술팀의 심영환 대리가 농협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근로자와 상공인,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하성식 함안군수는 근로자의 순수한 땀이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신뢰와 상생의 노력을 당부했다. (주)노루페인트 근로자들의 수상은 수상자와 회사 모두를 빛내는 소중한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劳动节，表彰模范工作者

劳动节前夕，为了稳定地区劳资文化、鼓舞员工士气，由咸安商工会议所主办的“2011年劳动节”活动中，咸安郡授予NOROO涂料股份有限公司漆西工厂涂料生产组主任车知勋模范劳动者郡议会议长奖，授予生产技术组代理沈映焕农协中央会长奖。

由1500多名劳动者和工商界人士、公务员出席的纪念仪式上，咸安郡郡守河盛植反复强调，劳动者的汗水是地区经济发展的基石，今后还需共同努力实现互惠互利。

✦제37회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유공 도지사 표창 수상

품질경영 활동을 꾸준히 해온 (주)노루페인트가 지난 6월 15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로부터 제37회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유공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 품질경영대회는 경기 지역 기업인들이 모여 품질경영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다. 김문수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일등품질만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필수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품질 한국 건설의 숨은 일꾼이자 애국자로서 세계 제일의 품질로 수출의 주역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제37회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유공 도지사 표창 수상



'경기도 일하기 좋은 일터'에
(주)노루페인트 선정



表彰第37届京畿道品质经营大会立功的知事

坚持开展品质经营大会的NOROO涂料股份有限公司于6月15日在京畿道中小企业综合支援中心对为第37届京畿道品质经营大会作出贡献的京畿道知事金文洙等人进行了表彰。京畿道品质经营大会是一个京畿道地区的企业家们聚集在一起发表品质经营优秀事例和交换信息的场所。金文洙知事在开幕词中强调：“唯有优秀的品质才是在世界市场上存活下去的最好方法，也是在竞争中占据优势的必要手段，作为爱国者，应该成为出口世界第一品质的主角。”

+ '경기도 일하기 좋은 일터'에 (주)노루페인트 선정

(주)노루페인트가 2011년 '일하기 좋은 일터'로 선정되었다. 경기도는 6월 21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들기예 기여한 '2011년 일하기 좋은 일터'를 발표했으며 (주)노루페인트는 대기업 중견기업 부문에서 KT, 하이닉스 반도체와 함께 선정되었다. 선정 과정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신뢰경영 평가(50%), 가족친화제도운영(40%), 이직률 등 기업실태(10%)를 반영해 엄격하게 심사했다.

시상은 6월 21일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홀에서 이뤄졌으며, 인증기업 및 공공기관은 경기도지사와 지식경제부장관 공동명의로 인증패가 수여됐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0.5%),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기술닥터사업 신청 시 가점(5점) 부여 등 8개 기관에서 27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도내 대학에서 선발된 우수 대학생 800명(8개 대학)이 선정 기업을 직접 팀방하는 기회가 마련되는데, 도는 이 탐방을 실제 취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NOROO 涂料股份有限公司被评为“京畿道最佳工作单位”
NOROO涂料股份有限公司被评为2011年“京畿道最佳工作单位”。
京畿道于6月21日公布了2011年致力于模范运营家族亲和制度和营造最佳工作环境的“最佳工作单位”，NOROO涂料股份有限公司

与韩国支柱企业KT、海力士半导体一并获选。评选过程中，由专家参与并严格审查了信赖经营评价（50%）、家族亲和制度运营（40%）、离职率等企业动态（10%）。

颁奖仪式于6月21日在京畿高科园多功能厅举行，认证企业和公共机构获得了京畿道知事与知识经济部部长联名授予的认证牌，同时还享有中小企业培养资金支持的最优惠贷款利率(0.5%)、地方税税务调查延期(3年)、申请技术博士时加分（5分）等8个机构27项激励政策。另外，将选拔道内大学（8个大学）的800名优秀大学生，参观获奖企业，并计划推动与大学生实际就业相关联的项目。

+ 에코싱싱 합안독방 마라톤 투어 참가

5월 8일 합안군에서 주최한 제2회 에코싱싱 합안독방 마라톤 투어 대회에 (주)노루페인트 칠서공장 도료생산팀 인원 10명이 하프마라톤에 참가하여 전원 낙오 없이 완주를 마쳤다. 참가자들은 강을 따라 펼쳐진 악양 독방의 휴경을 달리며 푸른 자연을 만끽했다. 때마침 악양 둔치는 유채꽃이 만발하여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더욱 높여 주었다고. 또한 (주)노루페인트 참가자들은 안양공장의 인사총무팀 민경남 차장의 도움으로 순&수 홍보물을 등에 부착함으로써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参加咸安郡竞走马拉松比赛

5月8日，NOROO涂料股份有限公司漆西工厂涂料生产组的10名职员参加了由咸安郡主办的第2届咸安郡竞走马拉松比赛。正值岳阳江畔油菜花盛开的季节，参赛者可以一边比赛一边欣赏美丽的自然风光。NOROO涂料股份有限公司的参赛者在安阳工厂人事总务组闵景南次长的帮助下穿上了印有“纯&秀”的比赛服，借此机会宣传了公司的产品。

(주) 노루오토코팅

NOROO汽车涂料有限公司

+ 족구대회 개최

직원들의 단합과 사기 증진을 위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점심시간을 이용, (주)노루오토코팅 화성공장에서 족구대회가 개최되었다. 관리부문, 영업부문, 기술부문, 생산부문 총 4개 부문에서 8개의 팀을 구성하여 토너먼트 방식의 경기를 펼쳤는데, 서로 땀 흘리고 함께 하는 족구대회를 통해 임직원들은 화합과 단결을 다시 한번 느끼고 2011년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각오를 되새겼다. 이후 우승팀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준우승팀에게는 상금 30만원이 수여되었다.

举行脚球(Foot Volleyball) 比赛

为加强职员们的团结，利用6月21日和30日的午休时间，NOROO汽车涂料有限公司举行了脚球比赛。由管理、销售、技术和生产四个部门的8个组参加了本次比赛。通过比赛全体员工再一次感受到了和谐与团结，为实现2011年经营目标凝聚精神。赛后冠军和亚军分别得到了50万韩元和30万韩元的奖金。



에코싱싱 합안독방 마라톤 투어 참가





스마트폰으로 돈 관리해 주는 앱

말 그대로 너무나도 스마트한 스마트폰. 이번에는 스마트폰에게 금융 업무를 맡겨 보자. 가장 기초적인 가계부에서 포인트 카드 관리, 쇼핑, 주식 투자까지 깔끔하게 관리해 주는 앱들이 모였다. 현명한 소비부터 시기 적절한 투자까지, 똑똑한 스마트폰은 나만의 재무 설계자가 되어 줄 것이다.

증권통



주식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보안상의 여러 인증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주식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증권통'을 권한다. 물론 회원가입을 해야 실 시간 조화가 가능하지만, 증권사의 앱과 달리 금융 정보나 계좌도 필요치 않고 회원가입 후 자동 로그인을 설정해 놓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주식 정보를 볼 수 있으니 직장인에게 딱 맞는 앱이다.

스마트 월릿



지갑이 두꺼워지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슬프게도 멤버십 카드 때문인 경우가 많다.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언제 갈 지 모르니 두꺼워진 지갑에서 카드를 빼놓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혜택도 빠뜨리기가 일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앱이 있으니 '스마트 월릿'이다. SKT에서 만든 것이지만 KT 고객도 사용할 수 있다. OK 캐시백부터 시작해서, T membership (SKT 사용자인 경우), 롯데, 피자헛 등등 여러 가지 멤버십/포인트 카드 등록이 가능하고 이 앱을 통해서 새로운 멤버십을 가입하거나 쿠폰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제 지갑을 깔끔하게 관리하며 멤버십과 포인트 혜택도 빠짐없이 누리보자.

국민은행 스마트폰 적금



커피나 술, 담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돈 다 모았으면 차 한 대 샀겠다" 였을 것이다. 과연 차를 살 수 있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앱이 나왔다. '국민은행 스마트폰 적금' 앱 설치와 국민은행 적금 상품 가입 후, 커피 한 잔(담배, 술 기타 등등)을 하고 싶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 앱에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금액만큼 내 계좌에 저축이 된다. 유혹을 이겨낸 기특한 결과를 돈으로 환산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앱이라 할 수 있겠다. 과연 차를 살 수 있을 지 1년 동안 도전해 보자~

가계부



알뜰 살림은 가계부에서 기초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기록하기란 어려운 일. 그래서 앱이 나왔다. 대부분 카드 사용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받는데, 이 메시지를 자동으로 지출 항목에 반영, 저장해 주는 것이다. 알뜰가계부, 티끌모아, 찐돌이 가계부 등이 있으며, 사용자 정의 분류 항목도 만들 수 있고, 카드 할부 기능도 지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소셜커머스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쇼핑이 인기다. 하지만 매일 달라지는 수많은 상품과 할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사이트를 찾는 것은 Smart한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소셜커머스 모음 앱으로 쿠폰차트, 티켓초이스, 오펜이거 등이 있다. 구매 취향에 따라 알맞은 앱을 골라 좀 더 스마트한 쇼핑을 즐기자.



강남동호회

"아빠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아빠가 미덥지 않은 딸의 눈초리에 진땀을 흘리는 (주)노루케미칼 서청원 과장님입니다. 화가 딸을 둔 덕에 아빠가 고생하시네요. ^^



남새잡는 스킨케어팀

땡벌 아래서 진행된 촬영 중에도 순&수 프로젝트 팀원들의 담소와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함께한 시간만큼 할 이야기도 많으시겠조?



NNV

NNV 강성용 부총경리님과 호치민 영업소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언어도, 국적도 다르지만 카메라 앞에서의 웃음은 똑같지요. 그리고 NNV에 대한 마음도요.

Behind Cut



숨은 사진으로 보는 편집.후기.

뜨거워지는 햇볕 아래서 진행된 20호에는 많은 분들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시원한 한 줄기 바람, 차가운 냉커피를 건네는 손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실렸지요. 서로에게 그늘과 바람이 되어주는 NOROO 가족의 배려와 애정,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남새잡는 스킨케어팀

창업주의 홍상 앞에 선 조영호 사장님과 신입직원분들을 보니, 세월의 격차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긴 역사 속에서 매일 새롭고 또 새로워지는 (주)노루케미칼입니다!



남새잡는 스킨케어팀

온몸을 던져 포즈를 취해 주신 탁구동호회 회원님들의 날아갈 듯 시원한 몸짓에 이 여름의 더위가 씻기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탁구동호회로 땀 빼러 가요~